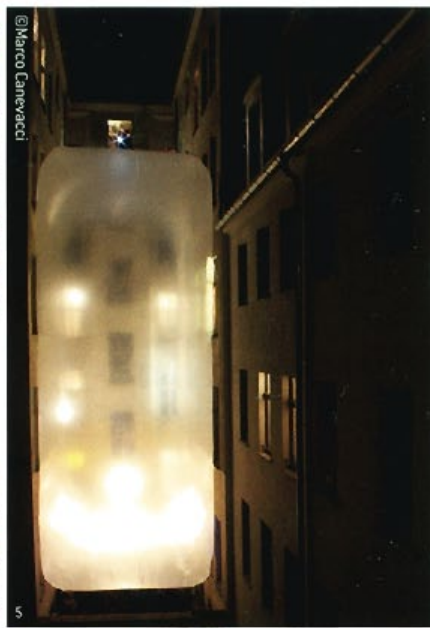


도시를 표류하는 투명한 구조체, 플라스틱 버블

Plastic Bubble: Transparent Structures Drifting in a City



베를린의 디자인 사무소인 플라스틱 판타스틱가 특별한 공간 경험을 위한 건축 작업을 시도했다. 각기 다른 도시의 중심부에 다른 형태로 설치된 이 거대한 플라스틱 버블은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 하나의 객체로, 도시 안에서 새로운 공간 영역을 형성하며 일시적인 공간의 변화를 꾀한다. 플라스틱 판타스틱는 버블의 외관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공간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고자 했다. 버블 안으로 도시의 풍경을 끌어들이고,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사이에 통로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버블을 바라보거나 그 주변을 걷고, 내부에서 움직이면서 버블과 상호작용한다. 이 투명한 구조체는 물리적인 환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작용한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형태나 배치를 달리할 수 있어 거리나 아파트 건물 사이에 놓일 수도, 호수 위를 표류할 수도 있다.

Berlin's Plastique Fantastique came out with a new architectural project to provide a unique experience in experimenting with space. Huge plastic bubbles installed in different forms in the downtown areas of several different cities become objects that respond to their surroundings, creating new spatial realms and providing temporary alterations to a space. Plastique Fantastique is interested not only in the appearance of the bubble, but also in changing the perception of space. It attempts to draw the urban landscape into the bubble, thus creating a passageway between public space and private space. People view the bubbles from afar, walk around them or interact with them from within. These transparent structures function as tools for experiencing the physical environment in new ways. The bubbles can be structured and arranged differently, according to a variety of surroundings; they can be positioned on the street, in-between apartment buildings, or else drifting on a lake.

1. Flippat, Malmoe
2. Gallerinatten, Moderna Museet Malmoe
3. Das Küchenmonument
4. Lynatica, Massa
5. Space Invaders - Topstrasse 166, Berlin
6. A2 - Zweite Architekturwoche, München
7. Wedding, Berlin
8. Burbuja Manchega, Castilla

귄터 베니쉬, 윌리엄 미첼 별세

Günter Behnisch, William Mitchell Remembered

해체주의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귄터 베니쉬가 지난 7월 12일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1952년에 자신의 사무소, 슈투트가르트-실렌부흐를 세웠고, 1966년부터 베니쉬 & 파트너로 이름을 바꿔 2008년까지 운영했다. 베니쉬는 독일이 변화의 시기를 겪을 때 건축가로서 학교 건물들을 만들었다. 건축 비평가들은 그가 설계한 뮌헨 올림픽 시설들과 본 독일국회의사당 건물을 열린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교육가로서 수세대의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생전에 완성하지 못한 작업들은 그의 아들 스테판 베니쉬(베니쉬 아카데믹)가 마무리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6월 11일에는 컴퓨터 기술의 예찬자이자 예언자였던 윌리엄 미첼이 65세의 나이로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비트의 도시』로 국내에 잘 알려진 그는 1977년 자신의 저서 『Computer-Aided Architectural Design』에서 PC가 건축에 혁명을 가져올 것을 예견했고, 2003년 『Me++: The Cyborg Self and the Networked City』에서는 도처에 퍼진 휴대전화기 바꿔놓을 공공 공간의 사용 방식을 펼쳐 보이기도 했다. 미첼은 18년 동안 MIT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1992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MIT 건축학장을 지냈으며, MIT 미디어랩에서 스마트 도시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켰다. 재임 기간 동안 프랭크 게리의 스타타 센터(2004), 케빈 로치의 제시거 스모크센터(2002), 스티븐 홀의 시몬스 홀(2002) 등의 건립 자문을 달기도 했다.

The architect Günter Behnisch passed away on July 12, at the age of 88. His practice in Stuttgart-Sillenbuch, which he founded in 1952 (from 1966 onwards called Behnisch & Partner), continued until 2008. Günter Behnisch stood for the architectural expression of Germany's transformation into a more democratic, freer and more socially aware society. As an architect active during the years of Germany's reconstruction, Behnisch had shaped the appearance of schools and universities. Architectural critics described his buildings and facilities for the 20th Olympic Games in Munich, as well as his buildings for the German Parliament in Bonn, as symbols of the "open democracy" of the "Bonner Republik." As an educator, Günter Behnisch had been a decisive influence on several generations of architects. William Mitchell, a longtime technophile and booster of the idea that computers could aid designers, passed away on June 11. In his book, Computer-Aided Architectural Design (1977), Mitchell had successfully predicted that PCs would soon revolutionize architecture. In later books, such as Me++: The Cyborg Self and the Networked City (2003), Mitchell explored themes about how the ubiquity of cell phones forces people to use public spaces differently from the past.